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3)  
 ”



## 새가족 환영, 처음 믿음생활은 <새가족위원회>와 함께!

<새생명반> <새기쁨반> 교육 과정 마치면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으로 하나님 배우며 성장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3)**

따뜻한 사랑으로 새가족을 맞아요  
4월 총력전도의 달, 광림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기도회로 모여 한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많은 새가족들이 광림교회에 나와 첫 예배를 드렸다. 새가족들에게 광림교회는 아직 낯설고 어색하지만, 성도들의 따뜻한 인사와 광림교회 새가족위원회의 정성어린 영접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선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면 인도자의 안내로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대에 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새가족 환영’ 시간에 담임목사의 영접기도와 광림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가족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새가족실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축복기도를 받고, 교회 소개 및 선교구 목사

교구 전도사, 양육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3부예배 후에는 식사도 함께 한다.



또한 새가족들에게 교회와 예배에 대해 배우고 믿음의 성장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새가족을 위한 교육 과정**  
<새생명반>은 처음 믿음생활을 시작하는 새가족을 위해 주일 오전 10시(양의 문)와 오후 1시(새가족실)에 4주 동안 진행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교회란 무엇이며 예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우면서 교회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새기쁨반>은 오전 10시, 두란노강의실에서 4주 더 받게 된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성경은 어떤 유익을 주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모두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을 많은 성도 앞에 공표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세상에서 나의 힘을 믿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속회와 선교회, 광림평생교육대학원에 소속되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생활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진청 성도(12교구)의 간증이다.

**가족처럼 친근하게 맞아주는 새가족위원회**  
새가족이 믿음생활을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새가족위원회다. 한순례 권사(23교구)는 “믿지 않던 영혼이 광림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신앙이 없을 때 누군가 사랑으로 채워주었듯 저도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했다.

새가족위원들은 영접팀, 양육팀, 새생명팀/새기쁨팀, 애찬팀으로 구성되어 42명의 위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애쓰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기도회를 열어 새가족의 양육과 교회 정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화심방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세미나를 갖고 관계성과 소통능력을 비롯한 영적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상국 장로(새가족위원회 위원장)는 “새가족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4:3~14)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라는 단어를 다루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살림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죄,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대상화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수가 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 첫째,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떠났고, 예수님만 혼자 남으셨습니다. 여섯시 정오가 되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 매우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라 상호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한복음 4:3~14  
3.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호하지 아니함이라 10.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1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18절)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 다섯 번 이혼했다는 것은 다섯 번 거절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것은 인종, 문화, 성별, 도덕, 관습의 장벽을 넘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9절)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14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15절)라고 요청합니다. 여

인은 그저 공허감만 채워달라는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랫동안 여인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여인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며 여인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물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물이 생명이듯,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안의 문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20절) 이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21절)라고 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24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 때에 우리의 몸과 정신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다 드려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존엄성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에 열정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며, 예배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 셋째, 사랑의 손길이 생명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내면 문제, 영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치와 갈등과 모멸과 좌절이 한 순간에 날아갔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여인은 그 자리를 뛰쳐 나가 자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큰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절)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자신을 얽매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삶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 몽골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기공예배> 드려

4월 12일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첫 삽 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널리 알릴 것



4월 12일(금) 몽골 현지 시간 오후 3시에 김정석 담임목사와 김선도 감독님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골로새서 1장 15-23절을 본문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역사로 모인 곳이 교회이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둘째,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교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 화목케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고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과 형제자매를 화목케 하여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라"고 말했다. 기공예배 후에는 김정석 담임목사와 김선도 감독님 내외, 장세근 장로(장로회 회장), 오해일 장로(국외선교위원장), 남선교회총연합회 임원단 7명, 공사관계자와 귀빈들이

함께 '시삽 기념식'을 가졌다.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는 남선교회총연합회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건축되어지며, 총대지면적 900평, 건축면적 300평 중 1층 100평은 현지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교육실, 회의실, 식당 등 편의 공간이 배치된다. 2층 100평은 예배실, 3층 100평은 게스트하우스로 건축되어 현지 주민들과 청년들의 선교 교육 훈련 시 숙소로 활용될 것이며, 공사는 11월 중 완공 예정이다.

오해일 장로(국외선교위원장)

## 포토 뉴스



김정석 담임목사 개척교회 설립 표창패 받아 4월 25일(목) 제30회 서울남연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북교회(의정부), 과훈광림교회(인제), 시인교회(미안마), 라이몽교회(라오스)를 봉헌한 공로로 개척교회 설립 표창패를 받았다.



성금요 성찬예배 4월 19일(금) 저녁 8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 성찬예배를 드렸다.



부활절 음악예배 4월 21일(주일) 저녁 7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렸다.

## 담임목사 동정



- 4/14 세례예식1
- 4/16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4/19 성금요 성찬예배
- 4/21 부활주일
- 4/21 부활절 음악예배
- 4/25~26 서울남연회
- 4/27 월간회의

## 감독 동정



- 4/14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 4/19 성금요 성찬예배
- 4/21 광림북교회 부활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 남선교회, 부활절에 <택시 데이> 행사로 교회 홍보와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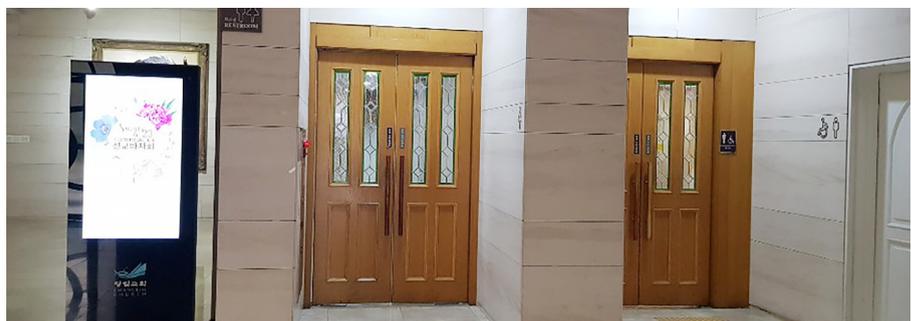
광림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 박기연 장로)는 4월 21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2,

3, 4부예배 전후 교회 정문 입구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 데이 Taxi day>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 되도록 택시를 타고 오게 하면서 먼저 기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내릴 때에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노란 어깨띠를 두르고 교인들을 태우고 오는 기사들에게 빵, 음료수, 부활절 계란 등이 담긴 쇼핑백을 전해 주면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등의 따뜻한 인사말을 건넸다. 택시 데이는 남선교회에서 새로운 전도방법을 찾다가 2013년 부활절에 1회성 행사로

진행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지금은 일년에 두 차례 부활절과 교회 창립주일에 실시되고 있으며, 한 번 행사 때마다 1,000개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박기연 장로는 "택시는 구전(口傳)을 통해 복음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택시기사는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다. 버스 기사의 역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한 적도 있다. 조만간 택시회사 한 군데를 선정하여 그 회사에 소속된 기사 전부에게 선물을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교회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진행 중



매 주일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복잡한 여자화장실을 현재의 남자화장실까지 확장한다. 담임목사는 여자 성도들의 불편한 환경을 보고 환경 개선을 결정했다. 이번 공사

로 밖에서 화장실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고, 어린이 화장실까지 만들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자화장실 확장 공사는 5월 초에

시작하여 5월 말 완공 예정이다. 남자화장실은 옛 자모실 위치로(트리니티 과제함 옆) 옮겨 공사 중이고 5월 4일 경 마칠 예정이며, 자모실은 본당 3층 KLB 사무실 옆으로 이전했다. 또한 전기 관련 시설도 노후화 되어 교회 전체 전등과 선로를 모두 교체하고 있다. 이안수 장로(관재위원장)는 "이번 공사를 통해 성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교회 시설이 확충되고 더 안전하게 되어 모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내 인생의 말씀

부족한 나를 인내하시며 사랑해주신 예수님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일성수도 고백 했지만,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신앙이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다. 쥐고 있던 것들과 쥐려던 것들을 잃게 하시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던 하나님의 타이밍. 왜 나를 버렸냐며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하던 어느 날, 내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보였다. 돌아보니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어둠을 흠어내고 계셨던 예수님의 흔적이 삶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신 후 내게도 같은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서 누군가와 동행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셨다. 내가 사랑을 나눌 만큼 잘 나서가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서투르고 부족했기 때문이다.

6년 전 그리도 꺼려하던 청년부로 보내신 후 '절대 나는 하지 않을 거다!' 굳게 결심하던 자리 위에 하나 하나 나를 세우셨다. 이때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가 정말 컸다! 나는 은혜로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경죄하기도 했고, 자아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훈련 속에서 몇 번이나 관두려고도 했다. 그때마다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은 갖가지 방법으로 나를 붙드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묶으셨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경을 넓히시어 고등부 교사 자리까지 부르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해주셨다. 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알려주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낮은 자리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곳곳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선 부족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그 값 없는 은혜가 서투르고 부족한 나를 끝없이 살려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다. 내 안에 더 깊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연약한 내 삶이 더욱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강효진 성도(고등2부 교사)

[찾아가는 인터뷰 4회]  
안성실 성도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 강정 마을에서  
광림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광림교회를 찾은 안성실 성도



안성실 성도가 드린 헌금

CTS로 광림교회 접하고 헌금하러 찾아와 지난 3월 31일 한 성도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광림교회를 찾아왔다. 손에는 매월 해군기지에서 보상으로 받은 9만원씩 10개월치 봉투를 들고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전해드렸다. CTS로 김정석 목사의 잠비아 선교영상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선교에 쓰시라고 헌금을 가져온 것이다.

4월 16일 기자는 제주도 서귀포 남쪽 끝자락 바다를 품은 강정마을을 찾아가서 안성실 성도를 만났다.

안성실 성도의 집에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는 양과 포대가 쌓여있었고, 방은 침대 하나가 있었으며, 그 옆에 돌이 앉으니 공간이 빠듯했다. 안 성도는 보일러도 없이 전기방석으로 제주 바닷바람이 거센 겨울을 난다고 했다. “농사를 안 지으니 남의 밭에 굴러다니는 것을 주워왔다가 저장해 놓고 먹어요. 바다에 나가 소라도 따서 말려서 먹고요.” 안 성도는 계절에 따라 도토리, 고구마, 양파, 콜라비 같은 것을 주워 와서 말려서

죽도 끓여 먹고, 무우도 주워다가 써서 그해 8월까지 먹는다고 한다. 과거를 회상하니 어둠이 많았지만, 안 성도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해맑았다. 노인정에서 10년 넘게 노인들 밥해주고 청소해주다 빈대떡도 팔았고, 슈퍼마켓을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했다고 한다.



안성실 성도의 헌금을 전달 받은 기획목사

“지난 18년 동안 저소득층으로 살았지만, 주워 먹든 밭 해서 먹든 그래도 하나님 축복으로 차고 넘치니까 부자잖아요. 하늘지붕 가려주고 추우면 전기장판이라도 있으니깐요.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상관없이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돕고 살아야지요. TV를 보다 ‘아, 광림교회에는 해외에서도 많은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이 돈을 광림교회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내가 직접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찾아 간거예요”라고 말한다. 광림교회가 해외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자들도 많으니 한 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면서 헌금봉투를 11개를 건네준다. 십일조, 감사헌금, 금식 헌금 등이다.

아버지 안흥모 목사님의 영향으로 늘 베풀어 문득 서랍에서 편지 꾸러미를 꺼내서 보여준다. “우리 아버지 안흥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LA에서 사역하시면서 보낸 편지예요. 다 모아놨어요.” 안 목사의 명함을 보니 “안흥모 목사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한국 평택 예텐 고아원장, LA 한국노인회 부회장, 기독교 노방전도국제 선교회 등”이라고 쓰여져 있다. “원래 우리 집안이 교회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밥을 많이 했어요. 항상 문간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남들에게 먼저 주었어요.” 또 “비설거지를 해야 해서 마음이 조금해요”라고 하니 기자는 눈치 없이 더 머무를 수가 없어 서둘러 나왔다. 안 성도는 마당에 양과 포대를 하나 가져가라면서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를 만났다.

안미영 기자 amy1216@sogang.ac.kr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2019년 1차 세례예식이 4월 14일 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있었다. 100명의 성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 |           |          |          |          |             |             |          |          |          |
|-----------|----------|----------|----------|-------------|-------------|----------|----------|----------|
| 2교구 양수진   | 3교구 김인구  | 5교구 준쿤바  | 5교구 김하영  | 5교구 최공주     | 5교구 조연우     | 5교구 조민우  | 5교구 오세복  | 6교구 김지연  |
| 7교구 백종혁   | 8교구 박창혁  | 8교구 김연화  | 9교구 김시영  | 10교구 이강욱    | 11교구 김영일    | 11교구 이재한 | 13교구 이주영 | 13교구 김경욱 |
| 13교구 이정훈  | 14교구 김명채 | 14교구 정승원 | 14교구 김지선 | 16교구 최종숙    | 17교구 이상민    | 17교구 김홍규 | 20교구 김은진 | 20교구 강희애 |
| 20교구 윤세준  | 20교구 박수영 | 21교구 이민선 | 22교구 김명숙 | 22교구 김도균    | 23교구 송영숙    | 23교구 염완돈 | 24교구 김종명 | 24교구 정미경 |
| 25교구 신유진  | 27교구 박성희 | 27교구 최수현 | 31교구 정유찬 | 31교구 박 미    | 31교구 정호운    | 32교구 김용필 | 51교구 이상욱 | 51교구 신용준 |
| 51교구 권중훈  | 51교구 오성환 | 51교구 조수민 | 51교구 조현준 | 51교구 장현준    | 51교구 고유민    | 51교구 고유준 | 52교구 김재근 | 52교구 류대한 |
| 52교구 강익현  | 52교구 최규성 | 52교구 김주영 | 52교구 최우혁 | 53교구 조수환    | 88교구 최수빈    | 88교구 한유민 | 89교구 한수민 | 89교구 김재호 |
| 89교구 윤주형  | 90교구 이화금 | 90교구 심재문 | 90교구 현금주 | 90교구 예트경바티르 | 90교구 예트앤치메크 | 90교구 사릉후 | 90교구 배갈  | 90교구 발트  |
| 90교구 보영하식 | 71교구 임충재 | 입교 -->   | 3교구 신동하  | 13교구 이상희    | 15교구 최원범    | 21교구 우서영 | 25교구 정정현 | 26교구 박재연 |
| 26교구 박소연  | 26교구 박정연 | 27교구 이경민 | 28교구 안택민 | 31교구 김재성    | 33교구 장규식    | 33교구 이광림 | 51교구 김호준 | 52교구 김의찬 |
| 88교구 김보라  | 88교구 장수경 | 88교구 이재민 | 88교구 김지윤 | 88교구 박상욱    | 88교구 왕범식    | 88교구 이하림 | 88교구 고병재 | 89교구 이가원 |
| 89교구 한예은  | 89교구 한성령 |          |          |             |             |          |          |          |

# 누구에게나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랑부

4월 21일, <부활주일 및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드려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  
지난 4월 21일 부활주일과 장애인주일을 맞아 광림교회 사랑부는 장천홀에서 'For You'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발달장애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함께 드린 예배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세례예식도 있었다.

김덕민 목사(사랑부 담당)는 1부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부 순서에서는 마하나임AP(교육부), 청년교사팀(사랑부), Call Up(사랑부 댄스팀)의 축하공연으로 모두 하나 되어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었으며,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다. 또, 사랑나눔 중창단의 3부예배 헌금송 특별연주가 있어 참석한 광림의 성도들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장애인주일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다. 이에 앞장서는 사랑부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새벽에 모여 "사랑부 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헌신한다.

활발한 활동으로 개개인의 달란트 발견  
광림교회 사랑부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으나 현재는 주일예배 뿐만 아니라 '광림, 예수와 주간보호센터'에서 22명의 학생들이 주중에 생활하고 있고, 이레센터(미술반), 콜업(댄스팀), 농구팀, 사랑부 트리니티, 사랑나눔 중창단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이어서 축구모임, 영화모임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흥미와 재능을 살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 사랑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가 만나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 신앙 간증

###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반쪽이 어디 있느냐?" "나와 약속한 네 진짜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보시며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로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다 포기하고 이 나라를 힘들게 찾아와야만 했던 탈북민인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같은 북한의 수용소에도, 총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형장에도, 피가 흐르는 두만강과 압록강에도, 동포들이 말라 죽어가는 이방 땅의 깊은 산속과 몽골의 망망한 사막에도 계시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찢겨지는 북녘의 자녀들을 보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힘없는 몇몇 가난한 선교사들을 통해 수많은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는 이미 3만 3000명이라는 탈북민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정부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한 명 한 명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북녘 땅의 피눈물과 찢어짐을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그곳의 황폐함과 파괴됨이 불쾌하다고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그 땅을 보시며 아파하실 아버지를 위로하는 우리 광림의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고 찢어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히 위로 받으십니다.



백요셉 성도(청장년부)

## <제17회 렛츠 고 페스티벌> 젊은 가정들 모두 초대해요

4월 28일 주일, 총력전도주일 맞아 청장년부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축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족단위 교제의 장  
오늘 4월 28일 주일 진행되는 <제17회 렛츠고 페스티벌 Let's Go Festival>은 광림교회 청장년부에서 주최하는 총력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4월 총력전도 기간에 진행되는 페스티벌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교제의 장입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부부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

은 새가족을 배려하여 레크리에이션, 체육경기 및 푸짐한 경품과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이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신자의 눈높이로 준비하여 기쁨과 재미를 보장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를

갖고 오는 부모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점은 같은 층에 영아부 예배실과 화장실이 있고, 본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청장년부의 모임과 동시에 영아부를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페스티벌이 재미와 함께 의미있는 점은 청장년부의 공동체에서 맛보는 교제의 기쁨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어 부부로 살아간다는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발걸음은 어색하고 낯설어도 같이 땀 흘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이에 마음을 열며 같이 웃고 즐거워하며 혼자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문의 : 02-2056-5631

박상익 전도사(청장년부)

### 바자회 준비 중 만난 '터치워머'

- 목회현장 -



박중섭 목사(광림북교회)

바자회를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터치워머라는 제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팔까 많은 고민을 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젊은 감성인 듯 보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자회를 위해서는 대량의 물품도 필요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게다가 잘 팔려야 하는 여러 문제를 신경써야 하는 종합예술인 듯 보였습니다.

먼저 구입을 해서 우리가 먼저 팔아보자! 그렇게 시작하여 인터넷에 올려 팔아보니까 대박상품이었던 것입니다. 불티나듯 팔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치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처럼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개성상인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수량 확보였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물건이 없으면 그것만큼 난처한 일은 없죠. 물건 수량을 확보하려 동분서주하며 조금이라도 싼 물건, 수량확보를 위해 서대문, 의정부, 장흥 발품 팔아 뛰어 다녔습니다.

물건도 잘 팔리고 이대로만 하면 목회보다 더 잘 되는 대박아이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인기도 체크했고 이대로만 가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건 파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수량을 거의 100개 정도 확보했을 때 더 이상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연히 찬양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정말 기가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은 수량을 공급받았다면 정말 해야 할 것을 잊으며 물건에만 정신 팔렸을지 모릅니다.

터치워머는 손가락 터치로 향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터치워머였습니다.

##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 광림남교회 -



하나님께서 채우신 귀한 자리, 큰 은혜 넘쳐 광림남교회를 1998년 수지 성전부터 섬겼으니 금년으로 21년이 지났다. 40대부터 다녀서 이제는 환갑이 넘어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제법 많아졌다. 그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한 광림남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나를 많이 성장케 하였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주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한 날은 없지만, 특별히 올해는 나에게 뜻깊은 시간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잊지 못하겠다. 부활절 행사는 매년 맞이하는 것이요, 그동안 칸타타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

또한 넘쳤다.

2019년 가나안성가대 신입대장을 맡으면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게 되었다. 칸타타를 준비하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다. 반주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결원이 생겼고, 지휘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휘를 못하게 되었다.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도움을 구했다. 더불어 해마다 부활절 음악예배에 성도들의 참여가 낮아서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이 말씀을 붙들고 우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다. 하나는 연합성가대원 90명 이상 참여, 또 하나는 부활절 음악예배에 많은 성도들의 참석을 위해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성가대원 91명이 찬양에 참여했다. 아픈 분을 제외하면 거의 성가대 전원이 칸타타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성가대원의 참여는 광림수도원에서 3월 16일 가나안성가대, 새하늘성가대의 워크샵을 통하여 양 성가대가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음악예배에 많은 참여를 위해 교회학교 유/초등부, 청장년부에 특송을 부탁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 가족들이 오게 되어 예배 인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저녁 애찬을 150인분을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220명이 식사를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선교회 회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지휘를 맡아주신 김예성 집사님과 반주자 이종은 집사님께도 감사드리며, 양 성가대원들 헌신에 감사드린다. 이번 부활절 음악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 하심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 할 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시150:1)

이정욱 권사 (광림남교회 가나안성가대)

## 의정부 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오며 복음을 전한다

- 광림북교회 -



광림수도원 기도회 후

광림북교회는 의정부 민락2지구에 속하면서 민락1지구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다. 교회 옆으로 민락천이 흐르고, 향후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으로 들어설 탐석역은 5분 거리 내에 있다. 지난해 8월 기존 광림교인 20여 명을 포함 40여 명으로 시작하였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출석인원 150여 명(교회학교 28명)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특히 금년 1월 19일 열린 광림북교회 <스데반·마리아 가족 페스티벌> 이후 젊은 가정들이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30에서 40대에 이르는 마리아 속회는 10명이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5~8명

이 참석하는 스테반 남성속회는 매주 박중섭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속회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성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4월 23일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에서 펼쳐진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 바자회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오는 4월 30일에는 광림북교회 앞마당에서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을 미혼모 재정 자립에 돕기로 하였다. 직장에 휴가를 내어서라도 참여하겠다는 젊은 성도들의 의지와 열정이 뒤따라 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광림북교회의 박중섭 목사는 "광림교회의

장점은 오랜 전통에서 만들어진 시스템과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따라주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림북교회는 기존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든 성도들이 앞에서 끌고, 새로 합류한 젊은 층이 교회 곳곳에서 생기를 주고 있어 좋습니다"라고 전했다.

4월 12~13일 1박 2일로 35명이 광림수도원을 다녀왔는데, 이들은 다락방채플에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공원을 둘러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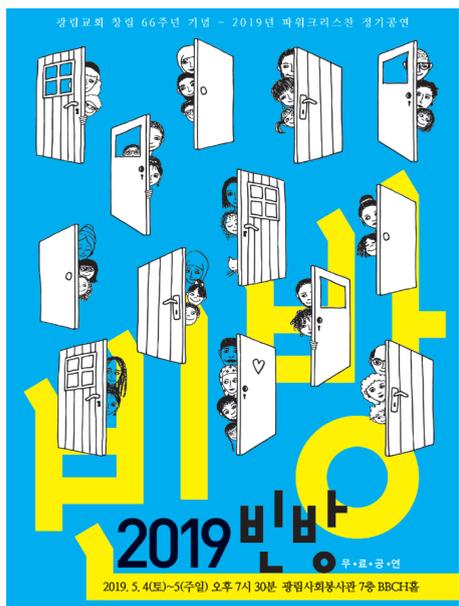
금년 들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유소년 축구 멤버를 선착순 30명 모집, 2달 전부터 유니폼을 맞추고 앞으로 있을 축구시합을 대비해 매주 연습을 한다. 그밖에 축구사진전을 비롯, 방과후 교실을 열어 수학, 영어, 성경, 태권도 등을 가르치거나, 교회학교 영어분반교실, 또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팽이(베이블레이드) 시합 등을 계획하고 있다.

6년 전부터 허허벌판 민락2지구 끝자락에 예비되었던 광림북교회. 조금씩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북방선교의 중심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아름다운 청년들, 몸짓으로 은혜를 전하다

〈2019 빈 방〉 파워크리스찬 정기공연, 5월 4일~5일 BBCH홀



‘텅빈 무대 위 치열한 오디션이 진행된다. 이 오디션은 어느 교회 연극반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어느 때보다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로 다들 배우로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다. 이때 연극 연출 선생님은 예상 밖에 의외의 인물을 캐스팅하게 되는데...’ 2019년 광림교회 파워크리스찬(성극위원장: 서명관 장로) 정기공연 〈2019 빈 방〉이 5월 4일(토)~5일(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사회봉사관 7층 BBCH홀에서 열린다. 파워크리스찬은 연극이라는 몸짓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광림교회 청년들의 모임이다. 이번에 출연하는 배우 11명의 청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로, 일과 후 저녁에 모여 연습을 한다. 연출은 맡은 김상일 집사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 요한복음을 통독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다지고, 하나님께서 나

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생각한다. 매일의 생활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의 ‘빈 방’ 연극은 소극장극본이지만 이번 ‘2019 빈 방’은 BBCH홀에 맞게 각색을 해 노래와 춤을 추가했다. 무대 제작감독인 박인수 권사를 비롯한 23명의 스텝진은 머리를 맞대고 배우들의 동선을 생각하며 무대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가슴 따뜻한 감동을 주는 성극 ‘빈 방’의 주인공 덕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성극을 통해 한국교회 문화를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파워크리스찬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선생님 역을 맡은 이정은 청년은 “저희 파워크리스찬은 대부분 비전공자로 이루어진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극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광림의 아름다운 청년들은 2월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준비한 공연 ‘빈 방’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 ‘덕구’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연습실로 달려갔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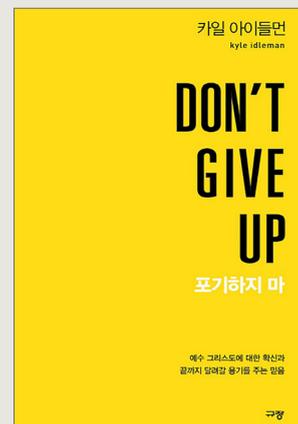
##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 〈좁은 문, 좁은 길〉

풀위서 지음

저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라는 말씀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7-20)는 말씀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됨을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를 두고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고 하신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다.



###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카일 아이들먼 지음

무엇인가 그만두기 직전에 녹초가 되었을 때, 엄청난 놀림으로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때, 위로가 우리를 지탱시켜줄 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에게 동정이 필요하다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전진하는 데 필요한 것도 정작 ‘용기’라고 강조한다. 그렇다. 이 책은 포기하지 말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속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주며 우리를 응원한다. 저자는 계속 믿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고 독려한다. 이렇게 믿음이란 뒤죽박죽으로 보여도 모든 퍼즐 조각이 반드시 맞아 들어간다고 계속 믿는 확신이다.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연구원 02-2056-5730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 예배위원회 응급처치훈련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지난 4월 14일 주일 예배위원회는 3부예배 후 광림교회 본당 시온성전에서 예배위원장 정하원 장로가 강사로 나서 ‘응급처치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교육이다. 예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도들의 응급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위원들이다. 그래서 예배위원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119응급구조단에 연락하고

그동안 초등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심정지 상황은 초기 3~5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때 올바른 대응과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예배위원회는 이날 강의를 통해 위기 상황의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및 관련 이론과 실습을 통해 대응방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급성기도 폐쇄 시 해야 할 응급처치 방



법인 ‘하이리히법’도 익혔다. 정하원 장로는 “급성 심정지 환자는 최초 10분간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익혀두어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배위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 <제4회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주님과 함께 걸어요!

5월 11일(토) 오전 9시, 잠실한강공원 청소년광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걸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4회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대회>가 5월 11일(토) 오전 9시 잠실한강공원 청소년광장에서 개최된다. 2005년 제3회 대회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실업인선교회가 주관하며 ‘사랑·나눔·화합’을 슬로건으로 전교인이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

함께 걸으면 좋아요.

기분 UP, 건강 UP, 기부 UP

오전 9시까지 각 선교구별로 행사장에 집결하여 오전 9시 30분 개회예배 및 개회선언을 하고 10시부터 걷기 대회가 진행된다. 코스는 메인행사장인 잠실한강공원 청소년광장을 출발해 잠실철교 반환점을 되돌아오는 왕복 5Km로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후 점심식사와 레크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후 2시30분 폐회예배와 시상식, 경품추첨이 있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코스 내에 있는 3곳의 체크포인트에서 확인도장을 획득하면 완보확인증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걷기대회 후에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OX 퀴즈, 도전 기네스, 초청공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또 동반한 자녀들을 위한 키즈존을 운영,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페이스페인팅과 솜사탕, 팝콘 증정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참가비, 결식아동과 미혼모가정에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여선교회와 기드온선교회, 의료선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대회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남선교회는 행사 당일 코스 곳곳에 남선 회원들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대회가 치뤄지도록 도우며, 많은 인원이 대회에 참석하도록 각 선교구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 교회에서 행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셔틀을 배차시키고 식사와 간식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선교회는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의료선교회는 현장에 의료진을 배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기드온선교회는 당일 차량봉사 수고를 약속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걷기는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걸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대회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티셔츠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전액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후원과 미혼모 가정 돕기에 사용된다. 특별히 기념 티셔츠 디자인은 ‘비욘드 크로젯’의 고태용 디자이너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또한 커플상, 삼대가 완주한 팀을 위한 효도상 등과 추첨을 통해 TV, 노트북, 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등 푸짐한 경품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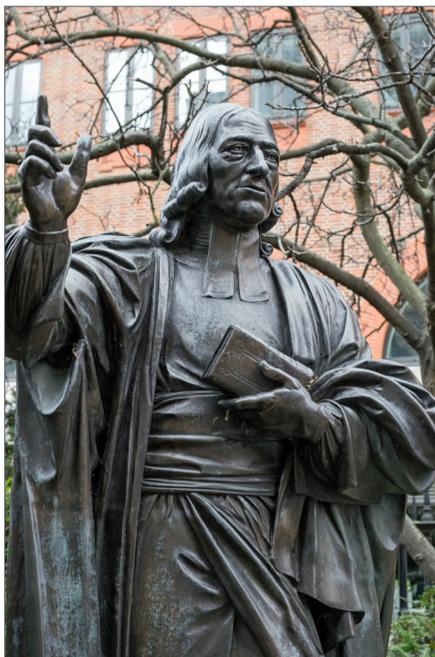
사랑·나눔·화합  
“주님과 함께 걸어요!”

## Walking with Jesus

제4회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날짜 :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9시~  
장소 : 잠실 한강공원 청소년광장  
주관 :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

##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 <어찌 날 위함이온지>, 회심에 대한 최초의 곡



**우리 광림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어찌 날 위함이온지(And can it be)”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1707~1788)의 회심(1738년 5월 21일) 직후에 쓰인 두 곡의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 준 찬송가

초기 감리교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학과 신앙고백의 내용을 노래에 붙여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탁월한 설교,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 널리 전파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인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어찌 날 위함이온지(And can it be)’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1707~1788)의 회심(1738년 5월 21일) 직후에 쓰인 두 곡의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탁월한 작사, 오르가니스트였던 부인 샬리 그윈(Sally Gwynne, 1726-1822)의 도움으로 평생 6,000여곡의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곡이 아마도 먼저 쓰였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회심에 대한 최초의 찬송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찬송은 3일 뒤 존 웨슬리의 회심일에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공식적으로 1739년 “찬송가와 성스러운 시”라는 찬송가집에 최초로 출판되었으며, 이후 교파를 떠나 많은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1절을 시작으로,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3절에서 성육신과 죽음의 은혜, 4절에서 죄의 속박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5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왕 되신 주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집에 따라 3절만 기록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6절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절까지만 부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찬송가에는 이 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영미권의 감리교회들과 교류하며 감리교 전통을 따라 오래전부터 이 곡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의 악보는 새가족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경 목사(목회선교지원실)